

번호 18-5

제 목	국문	여성근로자의 근골격계 증상 호소율과 관련 요인			
	영문	Symptom rates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and their related factors in female workers			
저 자 및 소 속	국문	유송희 <sup>1)</sup> , 원종욱 <sup>2)</sup> , 송재석 <sup>2)</sup> , 노재훈 <sup>2)</sup> <sup>1)</sup>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sup>2)</sup>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영문	Song Hee Yoo <sup>1)</sup> , Jong Uk Won <sup>2)</sup> , Jae Seok Song <sup>2)</sup> , Jaehoon Roh <sup>2)</sup> <sup>1)</sup>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sup>2)</sup>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분 야	보건관리 ( )	발표자 유 송 희	일반회원 (○) 전 공 의 ( )	발표 형식	구 연 (○) 포스터 ( )
	역 학 ( ) 환 경 (○)				
진행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p>1. 연구목적</p> <p>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은 고도로 분업화된 현대 사회에서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 반복동작에 의하여 근육, 혈관, 신경 등에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고, 이것이 누적되어 발생하는 질환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20-30년 동안에 산업 구조와 작업 방식이 급격히 변화되어 최근 컴퓨터를 주로 사용하는 서비스직, 사무직 근로자들에게서 이 질환의 발생이 종종 보고되고 있으며,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이 급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은 작업자세나 기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단지 작업요인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성별 특징과 함께 가사 노동에 의한 영향도 크게 작용할 수 있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일부 업종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신체 부위별 근골격계 질환의 증상 호소율을 구하고 그 증상 호소율과 연관된 직업요인 및 일반적 요인, 정신사회적 요인 및 가사노동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p> <p>2. 연구 방법</p> <p>본 연구는 컴퓨터 및 전자기기 제조업, 인쇄업, 금융업(은행, 증권회사, 카드회사, 생명보험회사), 정보통신업에 종사하는 25개 사업장의 여성근로자 779 명을 대상으로 1996년 6월부터 7월까지 미국국가표준연구소에서 개발한 자기 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근골격계 질환의 부위별 자각 증상과 관련 요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근골격계 질환 관련 증상이 있다는 것은 미국 NIOSH의 근골격계 질환 양성기준을 이용하였고, 이를 종속변수로 하고, 독립변수로 일반적 특성, 직업적 특성, 가사노동의 책임 등으로 하여 단변량 분석과 다변량 분석을 시행하였다.</p>					

### 3. 연구결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일부 업종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에서 각 부위별 증상 호소율은 허리가 가장 높아서 34.7 %였고, 어깨 32.3 %, 목 29.9 %, 하지 19.1 %, 팔꿈치 10.6 %, 팔 5.7 %의 순이었다. 이중에 한 부위라도 증상이 있는 근로자는 460 명으로 59.1 % 였다. 이들에 대한 분석결과, 연령, 교육정도, 사회적 지지도, 업무재량도는 대부분의 부위에서 증상 호소율과 연관이 없었으며, 대화형 작업에 비해 제조업, 자료입력 작업일수록, 업무 요구량이 많을수록 증상 호소율이 높아졌다. 특히 가사노동 책임은 이변량 분석 결과 책임이 클수록 모든 부위에서 증상 호소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다변량 분석에서는 가사노동의 책임이 클수록 손, 허리와 하지에서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증상호소율이 높았다.

### 4. 고 찰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대상 근로자의 차이나 연구 변수의 성격 등의 차이에 의해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본 연구의 의의는 전화 상담업무나 창구작업과 같은 대화형 작업자들에만 한정되어 있던 여성 근로자들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연구를 제조업과 자료입력작업자들에까지 포괄하는 연구로 확장하였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특히 가사노동이 여성 근골격계 질환의 증상 호소율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으로써 여성에서의 독특한 관련 요인을 찾고자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관적인 증상 호소율만을 조사하고 객관적인 검사를 통한 근골격계 질환 여부를 조사하지 못하였던 것과, 근무조건에 관한 인간공학적 측정이 부족한 점, 직접적인 가사노동의 변수를 단순히 가사노동의 책임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만 가지고 조사하였던 점 등의 한계를 갖고 있다. 향후에는 여성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요인을 좀더 명확히 밝히기 위해 작업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객관적 판단기준에 근거하여 밝히고, 자각증상만이 아닌 진찰과 객관적 검사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을 확진하며, 가사노동의 정도를 잘 반영할 수 있는 변수를 선정하고, 인간공학적 작업계측을 통해 위험요인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